

## 영웅의 눈물과 전쟁의 기억들\*

—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구비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이 소 윤\*\*

### [초 록]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영웅서사시 「장가르」에서 장가르를 비롯한 홍고르, 밍얀은 모두 시시대때로 눈물을 흘린다. 장가르는 그의 나이 세 살 때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을 통해 이상 국가 아르 봄바를 건설한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는 아르 봄바의 위기를 감지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때 장가르는 당면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슬퍼하고 있다. 홍고르는 적의 위세 앞에서 앞으로 들어가면 적한테 죽임 당할 것이고 뒤로 돌아가면 장가르가 자신을 창피해 할 것이라는 우울한 상상을 하며 눈물을 흘린다. 적 앞에서 그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밍얀은 장가르가 출격 명령을 내리자 고국을 떠나 아르 봄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글로벌박사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H1A2A1044556).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장가르, 홍고르, 밍얀, 애도, 우울증, 우울한 영웅, 예외상태, 칼미크 자치공화국, 기억서사

Jangar, Hongor, Mingyan, Mourning, Melancholie, Melancholic Hero, State of Exception, The Kalmyk Autonomous Republic, Memorial Narrative

바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홀로 외방에 질주해갔을 때의 외로움이다. 이들은 모두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울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가르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 점에서 그가 흘리는 눈물은 주권자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자임에도 장가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르 봄바가 정복 전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며 그로 인해 그의 위치가 내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밍안의 눈물은 주권자 장가르의 눈물에 반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의 눈물은 아르 봄바가 부족 연맹 체제임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밍안의 눈물이 부족 연맹 체제에서 비롯된 아르 봄바의 태생적 위기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적과 마주한 상황에서 흘리는 흥고르의 눈물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격랑 속에서 대적 앞에 단신으로 서야 했던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이 실제로 「장가르」 연창을 들었었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흥고르에 이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1943년 칼미크 자치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고 시베리아로 13년 동안 강제 추방당한다. 이에 칼미크인은 1980년대 말까지 강제 추방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폐제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르」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어 왔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실 ‘상실’로 점철된 그들의 민족사를 고려할 때 외부의 강대한 적 앞에서 ‘상실’을 예감하며 흘리는 영웅의 눈물은 칼미크인이 겪은 상실의 역사의 응축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폐제된 상실의 기억, 곧 강제 추방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엄습할 때 「장가르」는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위안을 준 기억서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장가르」가 기억의 사회적 폐제 속에서도 기억서사로서 끊임없이 반추되어 온 이유이다.

## 1. 문제 제기

“장가르와 그의 용사들은 분하면 눈물을 뿌리며 운다.” 국내 최초로 여러 「장가르」 판본을 주해하고 그것을 번역서로 낸 유원수는 「몽골 유목민의 영웅서사시 장가르」라는 해제에서 「장가르」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하며 이와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장가르」에서 영웅들은 “출정 임무를 지명 받은 경우 처량하게 울며 반발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웅의 형상과 사뭇 다른 지점이라는 것이다.<sup>1)</sup> 눈물을 흘리는 영웅의 모습은 이전에 박종성의 논문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장가르가 투레그, 곧 투르크 왕과의 대결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투르크가 몽골 민족과 지속적으로 대결을 벌였던 민족이기에 장가르의 눈물은 쓰라린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였다.<sup>2)</sup> 그러나 장가르는 투레그 왕과의 대결을 앞둔 시점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원수의 지적대로 장가르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다. 엘렌 오블라 「장가르」 판본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장가르를 비롯한 여타 영웅의 눈물이 등장하는 장은 2, 3, 6, 7, 8, 9, 10장으로 총 10장 가운데 7장에 달한다.<sup>3)</sup> 게다가 2장에서는 흥고르와 장가르 각각 혼자서 흘리는 눈물에 둘이 해후하며 흘리는 눈물까지 포함해 하나의 장 안에서 영웅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5번이나 등장한다.<sup>4)</sup>

1)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유원수 주해, 『장가르 1』, 한길사, p. 9.

2) 박종성(2004), 「몽골 구비영웅서사시 <장가르>의 영웅적 성격」, 『동아시아고대학』 9, 동아시아고대학회, pp. 193-194.

3) 엘렌 오블라 「장가르」 판본에는 1~10장까지 총 22번의 눈물이 나온다.

4) 김선자는 이족 영웅서사시의 주인공 즈거아루를 비롯하여 제주의 강림도령, 몽골의 게세르, 일본의 스사노오 등 종종 눈물을 흘리며 영웅 우는 영웅들을 ‘울보 영웅’이라 칭하고 이때 영웅의 눈물이 아직 그가 미성숙한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김선자(2018),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 북길

장가르와 그의 영웅들이 보여주는 잦은 눈물은 그들이 정상적인 슬픔을 넘어서 우울의 범주에 침잠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시시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장가르와 그의 영웅들을 ‘우울한 영웅’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서사 속에서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또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때 우울증이 어떤 이상의 상실과 관련되며 그러한 이상이 ‘조국’이나 ‘자유’ 등과 같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일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논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sup>5)</sup> 즉 장가르와 그의 영웅들이 흘리는 눈물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장가르」가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구비서사시임을 감안할 때, 「장가르」에 드러난 우울한 영웅들의 형상은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고고학적 잔해”<sup>6)</sup>일 수 있다. 이는 박종성의 분석대로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이 지닌 전쟁의 기억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의 「장가르」 연구는 ‘동아시아 구비서사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장가르」의 연행 환경과 작품 내용을 검토한 연구<sup>7)</sup>, 「장가르」를

---

드, pp. 215-217]. 「장가르」에 등장하는 영웅의 눈물 역시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김선자의 논의에서 이들 영웅이 대개 아직 어린 시절에 혹은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울음을 터뜨린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가르」에서 장가르와 여타 영웅들은 성인이 된 후 이미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친 후임에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칼미크 오이라드의 굴곡진 민족사가 가로놓여져 있다고 본다. 본고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장가르」에 나타난 영웅의 눈물을 고찰하기로 한다.

- 5) 지그문트 프로이트(2004), 윤희기·박찬부 역,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p. 244.
- 6) 주디스 버틀러(2019), 강경덕·김세서리아 역,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p. 197.
- 7) 최원오(2003),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I) — 몽골 영웅 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화학회; 서대석

한국 괴물 퇴치 설화 혹은 한국 영웅 소설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 연구<sup>8)</sup>, 몽골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토대로 「장가르」의 발생 지역과 성립 시기 등을 탐구한 연구<sup>9)</sup> 등이 있었다.<sup>10)</sup>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중국어 혹은 몽골어 등의 외국어를 통해 「장가르」 판본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연구들로 유원수가 주해한 『장가르』 번역서를 저본으로 삼은 연구는 없었다. 원어로 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일 역시 귀중한 작업이지만 꼼꼼하게 주해된 번역서를 활용하는 일 또한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원수의 『장가르 1』에 실린 앨런 오블라 「장가르」 판본을 연구대상 자료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나가기로 한다.<sup>11)</sup>

(1999), 「동북아시아 영웅서사문학의 대비 연구」,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김시준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 8) 오토공바야르(2009), 「조용전과 장가르의 비교연구: 영웅의 형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직지마(2011), 「몽·한 괴물퇴치설화의 대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이안나(2013),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의 기원 문제」, 『몽골학』 34, 한국몽골학회; 이평래(2018), 「『장가르(Jangar)』의 역사적 근거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속학연구』 42, 국립민속박물관.
- 10)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안나(2014), 「몽골 영웅 서사시 《장가르》에 나타난 여성의 신화적 형상과 의미」, 『비교한국학』 22-3, 국제비교한국학회; 김민아(2016),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오는 ‘잔차’의 양상과 의미」, 『문화와 종교』 21-1, 한국문화과종교학회.
- 11) 내몽골의 장가르 학자 데.타야는 칼미크 지역의 현지조사를 통해 앨런 오블라 판본의 진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보여준 바가 있다. 예컨대 앨런 오블라에게서 직접 「장가르」 연창을 받아 적은 어치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4학년생으로 교수 코트비치가 현지조사를 제안하기 이전까지는 「장가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그가 24시간 안에 아홉 장의 「장가르」를 어떻게 정서체로 받아 적을 수 있었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데.타야가 인정하듯 앨런 오블라 판본이 「장가르」 최초의 학술적 전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Д.ТАЯА(2011), “Халимагийн алдарт жангарч Овлйин арван бүлэг 《Жангар》, түүнийг тод үсгийн бар хэвлэлийн асуудалд”, *B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e.d. На.Сүх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pp. 21-33]. 유원수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 판본 가운데

## 2. 우울한 영웅의 눈물

「장가르」에서 주로 눈물을 흘리는 영웅은 주인공인 장가르를 비롯하여 흥고르, 밍안 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 먼저 장가르는 타키 졸라에서 탕삭 봄바, 위쟁 알다르로 이어지는 유구한 왕조의 후예이다. 그는 ‘친애 고아’로 두 살 때 흥명한 망가스에게 나라를 강탈당한다. 그 다음 해인 장가르의 나이 세 살 때부터는 주요 적들을 자신의 수하로 귀순케 하는 정복의 역사를 써나간다. 그리고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아르 봄바에서 태양 아래에서는 또 찾아볼 수 없는 그만의 궁궐을 짓는다. 그곳에서 그는 늘 스물다섯의 모습으로 그의 육친 용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리면 다섯 달이 걸리는 영토에 빼곡히 들어찬 오백만 백성을 다스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왔는데도 장가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까닭은 곧 그가 건설한 이상 국가, 아르 봄바가 끊임없이 적들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데에 있다.

### [1] 주군 장가르는

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때묻지 않은 노랑 하닥으로  
댄으며 앉아서  
모든 대신들에게 분부하였네.  
“여러분을 모이게 한  
영예롭고 아름다운 나의 이름은  
엄청나게 먼 곳까지 가서  
나를 남이 엿보고 있다.

---

앨랜 오블라 판본을 가장 먼저 번역하여 소개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원수가 주해한 『장가르 1』을 주텍스트로 삼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 두게르수렝이 할하 몽골어로 번역한 자료를 참조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이선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해가 저무는 곳에 있는  
투르크의 알탄 임금은  
만 마리 노랑 얼룩무늬 불친 말을 정비한 지  
삼 년이 된 것이 이것이다.  
입술과 발굽이  
물에 닿지 않게 기르고 있다.  
이제 삼 년이 되었기 때문에  
갈기와 꼬리는 날개가 되고  
네 발굽은 무쇠가 되어  
만 명의 흰 보동을  
그 위에 태우고 와서  
나를 대적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 만 마리의 노랑 얼룩무늬 불친 말을  
다리를 끊어 몰아내 빼앗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다”고 했네.<sup>12)</sup>

- [2] 주군 장가르는 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흠치며  
“어느 것이 싫어서 울지 않았다, 나는,  
오늘의 즐거움은 우리의 것이지만  
내일은 남의 손에 들어갈  
어려움 때문에 울었다, 내가.  
해가 지는 북쪽 모퉁이에 있는  
퀴츠태 퀴르멘 임금이  
위쟁 알다르 임금의 영토를  
이미 복속시켜 차지한 임금이다.  
나의 즐거움은 엄청나게 크게 되어  
머나먼 곳까지 들려  
퀴츠태 퀴르멘 임금이

---

12)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p. 235-237.

‘해뜨는 쪽  
내가 이긴 임금의 고아 아들이  
더 큰 이름이 나고 있다 한다’고  
나에게 전초의 큰 사신을 보낸다 하고 있다.  
이제 그를 내가 수를 내어  
사로잡아 오면, 좋아질 것이다” 하고 말했네.<sup>13)</sup>

[1]에서 장가르는 자신의 명성이 퍼져 “나를 남이 엿보고 있”다면서 투르크의 알탄 임금의 삼 년이 된 만 마리의 노랑 얼룩무늬 불친 말에 만 명의 흰 보동을 태우고 자신을 대적하러 올 것이라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전에 만 마리 말의 다리를 끊어내야만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에서는 장가르가 “오늘의 즐거움은 우리의 것이지만 내일은 남의 손에 들어갈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퀴츠태 퀴르멘 임금의 ‘해뜨는 쪽 내가 이긴 임금의 고아 아들이 더 큰 이름이 나고 있다 한다’”면서 자신에게 사신을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앞서 무슨 수를 내서라도 퀴츠태 퀴르멘 임금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과 [2]에서 장가르가 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흘리며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는 점이다.

기실 투르크 알탄 임금과 퀴츠태 퀴르멘 임금의 위협은 장가르 개인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 장가르의 개인적 명성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가르는 은연중에 본인에 대한 위협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전치시킨다. 가령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다”, “오늘의 즐거움은 우리의 것이지만 내일은 남의 손에 들어갈 어려움 때문에 울었다” 등의 언술이 그러하다. 그런데 장가르가 눈물을 흘리는 시점에 장가르는 적진에

13) 칼미크-오이랴드 민중(2011), p. 275.

의해 쓰러지지 않았으며 고로 장가르의 이상 국가 아르 봄바 역시 굳건하다. 장가르와 아르 봄바의 위기는 아직 당면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인 것이다. 게다가 장가르는 하필이면 술자리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쏟아지는 검은 눈물을 연신 훔치며 운다. 신하들이 영문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누군가가 용기를 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물을 때까지 그의 눈물은 계속된다. 여기서 장가르는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실에 대해 일종의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우울증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그보다 정상적인 감정인 ‘애도’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애도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우울증은 조금 더 복잡한데, 우선 역시 애도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우울증이 있다. 다음으로는 이상적인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인 우울증이 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경우, 또 그와 같은 종류의 상실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생겨나는 우울증이 바로 그것이다.<sup>15)</sup> 아감벤은 이러한 우울증의 특성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데 특히 우울증이 일종의 역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울증이 대상의 사라짐보다 앞서 일어나 그것을 애도하며 예고하는 경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선제적 애도가 우울증인 것이다.<sup>16)</sup> 이에 비추어 보면 아직 오지 않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가르는 곧 우울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홍고르의 눈물은 더 독특하다. 홍고르는 적진에 침투하기 전, 적과 장

14) 조르조 아감벤(2015), 윤병언 역, 『행간』, 자음과모음, pp. 56-61.

15) 지그문트 프로이트(2004), pp. 243-265.

16) 조르조 아감벤(2015), pp. 56-61.

가르의 대궐을 비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3] “우리 성주 장가르의 대궐에 견주어  
어느 정도일까?” 하고는  
다시 살펴보았네.  
아르심 정도 넓었고  
한 손가락 정도 높았네.  
“역시 하나의 사대주를 소유한  
큰 복을 받은 중생의  
대궐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것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내가?” 하고는  
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뿌리며 울었네.<sup>17)</sup>

[4] 해의 발의 오정의 아래 지은 대궐이  
열두 빛깔이 나며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보였네.  
“우리의 주군 성주 장가르의 대궐에 견주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보고 살폈네.  
성주 장가르의 대궐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고  
빛깔과 조각은  
더 나은 듯했네.  
... 중략 ...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비를 걸겠는가?  
술을 마시고  
화를 부르는 말을 지껓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그만둘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

17)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 134.

떨어뜨리며 울었네.  
 “앞으로 들어가면  
 이 임금이 나를 죽일 테고,  
 뒤로 돌아가면  
 영예로운 통치자 성주 장가르가  
 나를 창피해할 터인데”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하며 울었네.<sup>18)</sup>

[3]은 흥고르가 잠발 임금의 잔단 계렐 공주에게 청혼하러 갔다 실패하고 독신 차간 졸라 임금의 계렐젤 공주에게 다시 청혼하기 위해 차간 졸라 임금의 영토로 가서 그의 대궐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4]는 흥고르가 잔치에서 술에 취해 주정하자 장가르의 명으로 바타르 하라 질간 임금을 산 채로 잡아 오고자 하라 질간 임금의 대궐로 가 동태를 살피는 장면이다. 흥고르는 이렇게 적진에 침입하기 전, 대궐의 규모에 두려움을 느껴 눈물을 흘린다. 사실 장가르의 대궐은 태양 아래 또 찾아볼 수 없게 지은 것으로 사대주의 마흔 두 임금이 모여 의논하고 육천 열두 장인이 와서 완성한 것이다. 그 규모는 하늘과 건물 사이에 손가락 세 개가 들어갈 만한 간격을 남긴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더 강력한 적의 위세 앞에서 흥고르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여기서 흥고르가 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까지 나아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내가?”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4]에서는 흥고르가 자신의 만용으로 인해 이 사태가 벌어진 점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화를 부르는 말을 지껄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그만둘 수 있을까, 내가?”라는 언술에서 그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애도와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애심의 추락이

18) 칼미크-오이랴드 민중(2011), pp. 177-178.

다. 우울증은 심각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욕할 정도의 자기 비하감, 급기야 누가 자신을 처벌해주시기를 바라는 망상적 기대까지 나타낸다.<sup>19)</sup>

출정 전 흥고르는 “빛이 바래서 가는 것은 여덟 개의 내 긴뺨뺨 쏟고 가는 것은 한 그릇의 내 피뺨!”<sup>20)</sup>이라고 비장하게 외친다. 이렇게 입으로 뚫어 넘치던 흥고르의 자신감은 적진을 앞에 두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다만 “앞으로 들어가면 이 입금이 나를 죽일 테고, 뒤로 돌아가면 영예로운 통치자 성주 장가르가 나를 창피해할 터인데”라며 우울한 망상을 할 뿐이다. 흥고르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먼저 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가르와 마찬가지로 ‘우울한 영웅’인 것이다. 물론 흥고르의 자애감은 바닥으로까지 추락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흥고르가 적 앞에서 극도의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흥고르가 적을 염탐하면서 적의 위세에 놀리어 눈물을 흘리는 점은 역시 그가 일반적인 영웅과는 다른 감정선을 지니고 있는 영웅임을 암시한다.

밍얀은 우주의 미남으로 칭송받는데, 그는 장가르에게 알탄 투르크 임금의 알탄 샤라 초호르 불친 말을 빼앗아오라는 명령을 받자 눈물을 흘린다. 곧 “천만 신민을 놔두고, (살결) 희디흰 내 하탄을 버리고 피가 붉은 내 딸을 필요 없다 하고 알탄 샤르가”<sup>21)</sup>로 와서 장가르를 따른 자신인데 왜 “외방의 큰 적에게 나 혼자 몸만을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 것”<sup>22)</sup>이라고 울부짖는 것이다. 심지어 외방에 질주해가면 자신의 뒤에서 이야기해 줄 형, 아우의 움집도 없으며 뜨거운 한 그릇 음식을 해줄 누나, 누이의 움집도 없다면서 슬퍼한다. 이러한 밍얀의 눈물 젖은 규탄은 무려 35행

19) 지그문트 프로이트(2004), pp. 243-265.

20)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 169.

21)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p. 238-239.

22)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 239.

에 걸쳐 이루어진다. 장가르가 퀴츠태 퀴르멘 임금을 산 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도 밍얀은 또다시 울부짖는다. “고족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임을 기억하십니까?”<sup>23)</sup>

프로이트는 우울증 환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집요하게 떠들어대는 속성”을 꼽는다.<sup>24)</sup> 이에 대해 버틀러는 우울증 환자가 일찍이 말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내면에 그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5)</sup> 밍얀의 외침에는 그동안 장가르의 나라에서 철저히 혼자인 것과 다름없었던 그의 외로움이 커져서 쌓여 있다. 장가르의 집사로 살아가는 한 그는 다시는 자신의 하탄과 딸을 만날 수 없다. 천만 신민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영토로도 돌아갈 수 없다. 밍얀의 눈물은 지금의 사무치는 외로움이 전쟁터로 가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으로부터 온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애도한다는 점에서 밍얀 역시 ‘우울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그런 밍얀이 적진을 마주하고 흥고르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밍얀은 장가르가 출정 명령을 내렸을 때 흥고르보다 더 극심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해 아래의 한 모퉁이를 차지한 큰 북을 받은 중생이라는 밍얀의 자존감은 유리로 된 새 모양의 대궐과 날이 서 있는 노란 빛의 무쇠검, 잡은 것을 갈기갈기 찢는 짐승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sup>27)</sup> 이때 밍얀의 눈물은 적을 맞서지 못할

23)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 277.

24) 지그문트 프로이트(2004), p. 249.

25) 주디스 버틀러(2019), p. 261.

26) 특히 이러한 밍얀의 눈물은 장가르와 밍얀 사이의 사회적 권력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27) “해가 지는 북쪽 모퉁이에 지은/유리로 된 가루라 새 모양의 대궐이 보였네/“우리 성주 장가르의 대궐과 견주어/어떻다고 할 만할까?” 하고 보니/넓이는 아리심 정도 더 넓고/높이는 하늘에 닿을 만큼 되는 것으로 느껴졌네/“역시 해 아래 있는 한 모퉁이를/차지한 큰 북을 받은 중생이지만” 하고/“이 자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점에서 홍고르의 눈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의 논의에서 장가르와 홍고르, 밍얀 등을 ‘우울한 영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에게는 언젠가 전쟁이 끝나리라는 전망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아르 봄바는 그곳이 아름다운 만큼 널리 퍼져가는 장가르의 명성 탓에 사방의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의 포고를 받는다. 따라서 한 장 안에서는 이들의 슬픔이 일 단락될지라도 장가르치에 의해 새로운 장이 구송되면 우울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 3. 주권자와 이방인 그리고 민중

장가르는 항상 각 장의 서사 초입에 눈물을 흘린다. 그는 다가오는 전운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용사에게 원정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중국에는 장가르마저 출정하게 만드는 커다란 전쟁이 된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가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전쟁이라는 ‘예외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예외상태’의 공표가 반복되는 것이다.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라는 칼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 장가르가 흘리는 눈물은 곧 주권자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눈물을 시작으로 “항구적인 비상 상태의 자발적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28)</sup>

---

하고/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뿌리며 울었네.”, “큰 흰 동불이 우뚝 솟아 있고/순 흰 {은제} 교위 위에/날선 노랑 무쇠검을/가로막 위에 놓고/뒤로 젖히고 잠자는 것이 보였네/바른쪽과 왼쪽 구덩이에/잡은 것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호랑이와 곰이/가까이 엮드린 것이 보였네./그것을 보고/여덟 개 긴뿔이 쭈시고/성수 같은 검은 눈물을 뿌리며/두려워하고 있었네.”[칼미크-오이랴드 민중(2011), pp. 289-290, pp. 294-295].

그런데 장가르의 출격 명령은 종종 반대에 부딪힌다. 특히 밍얀의 눈물은 장가르를 완전한 주권자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몽흐자야는 「장가르」에 드러난 장가르와 열두 영웅의 모습이 13세기 이전 몽골의 부족 연맹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돌궐과 위구르 제국 시기에 조영된 비문에 등장하는 서른 부족 타타르 등의 명칭, 그리고 칭기스칸을 대적하기 위해 자드란 부족의 자모하가 13개의 부족을 연합시켰던 일 등은 13세기 이전 몽골에서 부족 연맹체제가 일반적 현상이었음을 예증한다. 그러므로 「장가르」에서 장가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장가르와 열두 영웅 사이의 상대적으로 유연한 위계는 13세기 이전 몽골 부족 연맹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29)</sup> 이 점을 고려하면 장가르를 완전한 중앙 집권 체제의 주권자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푸코는 16세기에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일련의 문헌들을 분석하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 개념이 보여주는 독특성에 주목한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자신의 공국을 상속, 혹은 병합이나 정복을 통해 얻기 때문에 공국의 일부가 아닌 그 외부에 놓인다. 따라서 군주와 공국 사이에는 근본적, 본질적, 자연적, 법률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군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하는데 군주는 밖으로는 그의 공국을 차지 또는 탈환하려는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안으로는 인민들이 군주의 공국을 받아들여야 할 자명한 이유가 없기에 계속해서 그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군주에게는 그의 소유물인 공국을 보호하라는 정언명령이 주어진다.<sup>30)</sup>

28) 조르조 아감벤(2009), 김향 역, 『예외상태』, 새물결, pp. 13-16.

29) МӨХЗАЯА(2011), 「Жангарт тусгагдсан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ал», *V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e.d. На.Сүх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pp. 45-51.

30) 미셸 푸코(2011), 오르트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pp. 133-139.

시공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의 군주 개념은 장가르의 눈물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유의미한 지점을 제공한다. 장가르의 아르 봄바 역시 그의 나이 세 살 때부터 이어진 무수한 정복 전쟁을 통해 얻어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르 봄바는 이를 노리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아르 봄바는 부족 연맹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흥고르와 밍얀을 비롯한 그의 수하들이 장가르의 명령을 꼭 따라야만 하는 선협적 이유는 없다. 장가르가 출정을 명할 때마다 한 번씩 저항하는 영웅들의 모습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자칫 아르 봄바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즉 아르 봄바를 향한 끝나지 않는 내외부의 상실에의 위협은 아르 봄바가 곧 장가르 자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만든다.<sup>31)</sup> 바로 아르 봄바가 장가르에게 우울증을 야기하는 대상인 것이다.

장가르의 눈물이 부족 연맹 체제에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려는 역할을 한다면, 밍얀의 눈물은 중앙 집권 체제하에서 부족 연맹 체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천만 신민을 버리고 ... 이제 외방의 큰 땅에 나 혼자 몸으로 ...”<sup>32)</sup> 하자노프에 따르면 유목사회에서 중앙 집권 체제는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만 결성되는 것이다.<sup>33)</sup> 이때 중앙 집권 체제의 ‘일회적’이라는 성격에 주목한다면 밍얀의 눈물은 전쟁이라는 “예외상태가 사례가 된” 상황<sup>34)</sup>에서 나오는 것이다. 장가르가 자신의 위협을 우리의 위

31) “만일 자아가 타자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타자가 대표하는 상실은 자아를 특징짓는 상실이 된다.”[주디스 버틀러(2019), p. 267].

32)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 277.

33)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유목정치 체에서는 비교적 집권화가 약하고 정부체제도 상대적으로 분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치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정부체계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에 필요했던 체제도 없어진다 ... 이같은 중앙집권화는 일회적(dispositional)이라 부를 수 있다.”[하자노프(2002), 김호동 역, 『유목사회의 구조』, 지식산업사, pp. 228-229].

협으로 규정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견고히 하려 할 때 밍얀은 자신이 떠 나온 가족과 영토를 언급하면서 장가르에게 본래는 아르 봄바가 부족 연맹 체제였음을 상기시킨다. 자신이 밍이라는 산과 천만 신민을 가지고 한 곳의 모퉁이에서 임금이 되었던 자임을 역설하는 밍얀의 모습은 영구적이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이다.<sup>35)</sup>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밍얀은 아르 봄바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밍얀의 눈물은 이방인의 눈물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르 봄바가 지닌 체제상의 균열이 아르 봄바 그 자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르 봄바는 「장가르」의 전체 서사에 걸쳐 끊임없이 이상 국가로서 찬양될 뿐이다. “늘 스물다섯 살의 모습으로 있는, 겨울이 없이 봄 그대로, 여름없이 가을로 있는, 떨리는 추위도 없이, 혈떡이는 더위도 없이,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봄바의 나라인 것”<sup>36)</sup>이다. 오직 밍얀의 절규를 통해서만 아르 봄바의 위태로움이 굴절된 흔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즉 중앙 집권 체제가 담지할 수 있는 폭력성은 체제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밍얀의 말이라는 우회적 경로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다.<sup>37)</sup> 호미 바바가 우울증이 수동성의 한 형태가 아니라 반복과 환유를 통해 생겨나는 일종의 반란이

34) 조르조 아감벤(2009), p. 23.

35)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 238. 굳이 13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서몽골에 해당했던 칼미크-오이라드 민중은 1434년부터 1552년까지 몽골 전역을 지배하는데 이때 이들은 초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4부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455년 그들의 칸이었던 에센 타이시가 사망한 뒤 칼미크-오이라드 민중의 4부 연맹체는 와해된다[르네 그루쎈(1998), 김호동 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pp. 720-721].

36)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p. 60.

37) “사회적 규제의 폭력은 그 폭력의 일방적인 행위 속에서는 찾을 수 없고, 정신적인 것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우회적 경로 속에서 찾을 수 있다.”[주디스 버틀러(2019), p. 263].

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우울증은 평정되고 분쇄된 반란”인 것이다.<sup>38)</sup> 이것이 우울증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밍양은 장가르의 언명을 따르는데 이는 끊임없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내몰렸던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역사와 결부된다. 외부의 적과의 전투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장가르를 중심으로 영웅들은 합심하며 밍양의 불만은 다른 영웅들에 의해 중재된다. 그렇다면 흥고르의 눈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흥고르는 적으로 표상되는 외부세계의 위협과 마주한 순간 두려움의 눈물을 흘린다. 이는 앞에서도 보았듯 밍양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듯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에게 전쟁은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한때 준가르 제국을 건설했던 오이라드는 100년 이상을 만주족이 세운 청조에 맞서며 동부 투르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심지어 멀리 티베트까지 제국을 확장시켰다. 북쪽에서는 러시아와 맞닥뜨렸지만 이들은 강대국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오이라드의 최후 지배자인 갈단 체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오이라드는 내분에 휩싸였고 청조로부터 엄청난 살육을 당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오이라드는 러시아 정교로 개종하겠다는 조건 하에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 일찍이 불가강 하류에 자리를 잡았던 그들의 후예, 칼미크가 있는 곳으로 이주한다.<sup>39)</sup>

칼미크는 할하의 알탄 칸이 가한 압력으로 인해 1616년에 먼저 준가르 제국을 떠나 서진(西進)을 거듭했던 이들이었다. 러시아는 두 차례 칼미크의 종주권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실은 주변 무슬림 국가들과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40)</sup> 이후는 더 참혹하

38) 주디스 버틀러(2019), pp. 271-272.

39) 제임스 포사이스(2009), 정재겸 역,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숲, pp. 140-143.

40) 르네 그루쎈(1998), pp. 722-723.

다. 점점 포악해지는 제정 러시아 치하를 견디다 못한 칼미크는 1771년 대규모의 탈주를 감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십만 명의 인구가 학살을 당한다. 1943년에는 나치와 결탁했다는 누명으로 무려 13년에 걸쳐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당하는데 칼미크인에게 이 시기는 ‘잃어버린 13년’이다.<sup>41)</sup>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잠시 전쟁의 격랑 속에서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역사가 결코 기록치 않았음을 암시한다. 「장가르」가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역사적 영웅인 아요크 칸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몽허의 견해가 있지만 「장가르」에는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이 치러내야 했던 무수히 많은 전쟁의 기억이 중첩되어 있다.<sup>42)</sup>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홍고르의 눈물은 실제 전쟁을 마추한 민중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홍고르가 적의 대궐 앞에 설 때는 홍고르를 구원해줄 장가르도, 다른 영웅들도 없다. 그는 오로지 단신(單身)으로 적 앞에 선다.<sup>43)</sup>

「장가르」의 연행에 대해서는 잔치나 결혼식 등의 연회에서 장가르치가 초청을 받아 「장가르」를 연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타야가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한 칼미크의 유명 장가르치 앨랜 오블라의 전기를 보면 전쟁의 순간마다 「장가르」가 긴요한 역할을 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앨랜 오블라는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때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장가르」를 연창하며 전쟁에서의 무사 귀환을 기도한다. 또 1920년 가을 초에는 앨랜 오블라의 게르 근처에 적군 세력이 와서 목자 그들에게도 「장가르」를 직접 불러 준다.<sup>44)</sup> 그 외에도 제2

41) Elza-Bair Guchinova (2006), *The Kalmyks* (tran. Lewis, David C.), ROUTLEDGE, p. 23.

42) Б. МӨХӨӨ (2011), 「Богд ноён Жангарын дүрийн түүхэн сурвалж- Аюук хаан」, *B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ИАЛ* (e.d. На.Сүх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pp. 66-86.

43) 이는 밍얀을 비롯하여 다른 영웅들도 마찬가지이다.

44) 이상의 사실에서 앨랜 오블라는 적군 세력의 편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 세계대전 당시에 칼미크 군인들이 전투에 나서기 직전 「장가르」 구송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sup>45)</sup> 적과의 대면을 앞두고 흥고르가 흘리는 눈물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장가르」 연창을 들었던 바로 이들 민중의 눈물일 수 있다.

러시아의 부랴트에게 「게세르」가 귀중했던 것처럼 칼미크 역시 「장가르」가 귀중했다. 1771년 대규모 탈주로 상당한 인구가 목숨을 잃었지만 칼미크에서 「장가르」 연창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40년 소비에트 연방의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칼미크 자치공화국은 「장가르」 500주년 기념제를 개최한다. 그러나 불과 3년 뒤 칼미크 자치공화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칼미크인에게 집단적 트라우마를 심어준 공백의 시기가 온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탈주’와 ‘공백’ 사이에 「장가르」 500주년 기념제가 있다.<sup>46)</sup>

---

그의 외아들 만지가 1918년에 적군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백군에 붙잡혀가 이후 죽임을 당했던 사실과도 깊이 연관된다[Д. ТАЯА (2011), p. 23].

45) Elza-Bair Guchinova (2006), p. 194.

46) 「장가르」 500주년 기념제는 1939년 7월 27일에 소련 공산당 칼미크 주 위원회 지도부 회의와 소련 칼미크 자치공화국 인민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1940년 5월에 기념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공화국의 지도부가 소련의 인민위원회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1939년 10월 8-9일, 관련 법령 925호에 의해 49명으로 구성된 칼미크 서사시 「장가르」 500주년을 위한 공화당 기념제 위원회가 칼미크 자치공화국 인민위원회 하에 창설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칼미크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련 전역의 지도자들과 작가, 교사들이 포함되었다. 1939년 10월 21일, 기념제 위원회는 1939년 10-12월의 기간 동안 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유명한 칼미크 장가르치 앨런 오블라의 기념비 프로젝트를 위한 소비에트 연방 전역의 공모전 개최, 「장가르」를 활용한 뮤지컬 드라마, 산문 및 시 작품의 공모전 개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 「장가르」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드라마 준비, 영웅 서사시 등의 주제에 대한 라디오 강의 등이 포함되었다. 기념제 위원회의 구성원과 활동 계획의 면면을 살펴보면 「장가르」 500주년 기념제가 단지 칼미크 자치공화국만의 행사가 아니라 꽤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500주년 기념 프로그램에는 칼미크 자치공화국과 모스크바에서 6일 동안 개최된 행사가 포함되었다[Б. В. Когданова (2016), 「О ПРАЗДНОВАНИИ 500-ЛЕТИЯ КАЛМЫЦКОГО ГЕРОИЧЕСКОГО ЭПОСА «ДЖАНГАР» (ПО

#### 4. 기억의 사회적 폐제와 「장가르」

세르게이 예세닌의 시 「푸가초프」에서는 희미한 새벽녘 3만 칼미크인이 러시아의 속박에서 탈출하고자 신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묘사된다.<sup>47)</sup> 1771년을 기점으로 목숨을 건 탈주가 계속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십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이로부터 170여 년이 흐른 1943년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시베리아로의 강제 추방이 시작된 것이다. 독일 군대의 하위 부대인 칼미크 기사 군단으로 참여했던 이들은 칼미크족 가운데 일부였지만 강제 추방이라는 징벌은 칼미크 민족 모두에게 선고되었다. 구치노바는 이들의 강제 추방이 실은 칼미크 자치공화국의 영토를 재분배하기 위한 소련의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강제 추방은 1944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민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선물로까지 인식되었다.<sup>48)</sup> 칼미크족의 배제가 소비에트 연방을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러시아에서 칼미크인이 겪은 고통은 그들의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욕망이었음을 보여준다.<sup>49)</sup>

---

МАТЕРИАЛАМ НАУЧНОГО АРХИВА КИГИ РАН)], 《ДЖАНГАР》 И ЭП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ТЮРКО-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ПРОБЛЕМЫ СОХРАНЕН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териалы I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алмыцкого института гуманита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Н, pp. 141-143].

47)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짐마차 소리를 꿈속에서 들으셨습니까?/오늘 밤 희미한 새벽녘에/3만 칼미크인들의 게르(천막)가/사마라로부터 이르기스로 지나갔습니다./러시아 관리의 속박으로부터./메추리처럼 받은 학대로부터/우리의 초원에서./무표정한 거북이의 무리처럼/칼미크인들은 자신의 몽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합니다./누군가가 우리의 초원을 버렸다는 것을./칼미크인이, 식량을 위해 사살할 수 있는/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권기배 (2010), 「러시아시에 나타난 칼미크인 형상연구」, 『외국문학연구』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 25-26].

48) Elza-Bair Guchinova (2006), p. 24.

49) 주디스 버틀러(2019), p. 21.

강제추방은 13년 동안 이어졌고 칼미크는 공식적으로 1943년부터 1956년까지의 시간이 삭제되었다. 이 기간은 칼미크인에게 일종의 비어 있는 시간으로 남았다. 충격적인 것은 1980년대 말까지 칼미크 내에서 추방에 관한 모든 종류의 회상이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학술연구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개인적 회고에 있어서조차 추방 사실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으며 오로지 사적 차원의 이야기만 나누었다.<sup>50)</sup> 즉 ‘말할 수 없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했던 셈이다. 칼미크인의 침묵은 무엇보다 강제 추방이 반역 혐의의 결과였다는 점과 관계가 깊었다. 사회적 권력이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슬퍼하지 않아야 할지 조절한다는 버틀러의 논의를 참조하면 여기서 사회적 권력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아야 할지 통제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강제 추방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으로 폐제된 것이다.<sup>51)</sup>

50) “The deportation of 1943 has become the gravest tragedy in the history of the Kalmyk people. Over the course of several decades right up to the end of the 1980s, all kinds of recollections of the deportation among the Kalmyk people were forbidden ... For a long time any kind of reminiscence about this tragic period in the people’s history was forbidden. It was a blank spot on the map, not merely in official academic studies but also in verbal traditions that referred to ‘before Siberia’ and ‘after Siberia’, ‘before migration’ and ‘after migration’; the fact of deportation itself was not mentioned. Older people’s accounts usually avoided giving a direct evaluation of the historical facts and bore only a personal character. Probably such a tight-lipped attitude to a national tragedy was connected with the Stalinist charge of treason.” [Elza-Bair Guchinova (2006), pp. 23-36].

51) 주디스 버틀러(2019), p. 262. 여기서 ‘폐제’는 라캉이 프로이트의 용어 ‘Verwerfung’을 프랑스어 ‘foreclusion’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어떤 ‘기호형식’을 주체의 상징계 밖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자아는 어떤 것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버틀러는 억압이 누릴 수 있었던 욕망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폐제는 ‘상실의 상실’, 곧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칼미크인은 독일 나치에 대한 부역이라는 혐의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13년의 강제 추방에 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밀어내었다. 즉, 기억의 사회적 폐제가 일어난 것이다. 폐제된 기호형식들은 주체의 무의식에 통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계의 한가운데서 일종의 환각 현상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상의 설명은

장제 추방의 기억이 사회적으로 폐제되었음에도 「장가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기억되었다. 1940년 「장가르」 500주년 기념제 당시 출판되었던 유명한 장가르치 바산고브의 레퍼토리는 1967년과 1978년에 이미 두 차례 출간된 바가 있었지만 1990년 「장가르」 550주년 기념제를 맞이하여 또다시 출간이 되었다. 1939년에 파보르스키가 그린 「장가르」 판화는 1990년 「장가르」 550주년 기념제의 우표로 제작, 사용되었다. 기실 1990년 「장가르」 550주년 기념제 이전에도 「장가르」 관련 학술 행사가 1972년과 1978년에 개최된 적이 있었다.<sup>52)</sup>



[그림 1] 1939년 파보르스키의 「장가르」 판화<sup>53)</sup>



[그림 2] 1990년 「장가르」 550주년 기념 우표<sup>54)</sup>

주디스 버틀러(2019), p. 23의 각주 17)과 p. 44의 각주 35) 참조.

52) Н. Ц. Биткеева (2001), 「«Джангар»: запись, публикация, изучение», “Джангар” и джангароведение (с.д. П.Э.Алексеева), p. 10-11.

53) 1939년 파보르스키가 그린 「장가르」 판화, <https://dic.academic.ru/dic.nsf/bse/83942/Джангар>, 2019. 9. 25. 접속.

54) 1990년 칼미크 영웅 서사시 「장가르」 550주년 기념 우표. [https://ru.m.wikipedia.org/wiki/Джангар\\_\(эпос\)](https://ru.m.wikipedia.org/wiki/Джангар_(эпос)), 2019. 9. 25. 접속.

기억은 망각에 의해 선택과 배열을 거치고 그 결과 하나의 ‘서사’로 존재한다.<sup>55)</sup> 칼미크인이 「장가르」를 통해 써 내려간 기억서사는 무엇이었는가? 칼미크인에게 「장가르」가 기억서사로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시베리아로 내몰렸던 그들은 결국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던 것이었지만 이를 잃었다고 감히 말할 수조차 없었다. 기실 그들의 민족사는 ‘상실’로 점철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의 강대한 적 앞에서 ‘상실’을 예감하며 흘리는 영웅의 눈물은 칼미크인이 겪은 상실의 역사의 응축물이다.<sup>56)</sup> 그러나 「장가르」에서 영웅들은 최종적으로는 적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해냄으로써 ‘상실’을 유예시켜 나간다. 사회적으로 폐제된 상실의 기억, 곧 강제 추방에 대한 기억이 엄습할 때 어찌면 「장가르」는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기억서사였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장가르」가 기억서사로서 끊임없이 반추되어 온 이유일 터다.

55) 발터 벤야민(2012), 최성만 역, 『서사·기억·비평의 자리』, 길, pp. 439-440.

56) 주디스 버틀러(2019), p. 243.

## 참고문헌

### 【자 료】

칼미크-오이라드 민중(2011), 유원수 주해, 『장가르 1』, 한길사.

### 【논 저】

- 권기배(2010), 「러시아시에 나타난 칼미크인 형상연구」, 『외국문학연구』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 김민아(2016),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 나오는 ‘잔치’의 양상과 의미」, 『문화와 종교』 21-1, 한국문화과종교학회.
- 김선자(2018),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 북길드.
- 르네 그루쉴(1998), 김호동 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세계절.
- 미셸 푸코(2011), 오르트망 역, 『안전, 영토, 인구』, 난장.
- 박종성(2004), 「몽골 구비영웅서사시 <장가르>의 영웅적 성격」, 『동아시아고대학』 9, 동아시아고대학회.
- 발터 벤야민(2012), 최성만 역, 『서사·기억·비평의 자리』, 길.
- 서대석(1999), 『동북아시아 영웅서사문학의 대비 연구』,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김시준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트공바야르(2009), 「조웅전과 장가르의 비교연구: 영웅의 형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2013),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의 기원 문제」, 『몽골학』 34, 한국몽골학회.
- 이안나(2014), 「몽골 영웅 서사시 《장가르》에 나타난 여성의 신화적 형상과 의미」, 『비교한국학』 22-3, 국제비교한국학회.
- 이평래(2018), 「『장가르(Jangar)』의 역사적 근거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속학연구』 42, 국립민속박물관.
- 제임스 포사이스(2009), 정재겸 역,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숲.
- 조르조 아감벤(2009), 김향 역, 『예외상태』, 새물결.
- 조르조 아감벤(2015), 윤병언 역, 『행간』, 자음과모음.
- 주디스 버틀러(2019), 강경덕·김세서리아 역,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지그문트 프로이트(2004), 「슬픔과 우울증」,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직지마(2011), 「몽·한 괴물퇴치설화의 대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원오(2003),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I) —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하자노프(2002), 김호동 역, 『유목사회의 구조』, 지식산업사.

Guchinova, Elza-Bair (2006), *The Kalmyks* (tran. Lewis, David C.), ROUTLEDGE.

Когданова, Б. В. (2016), 「О ПРАЗДНОВАНИИ 500-ЛЕТИЯ КАЛМЫЦКОГО ГЕРОИЧЕСКОГО ЭПОСА «ДЖАНГАР» (ПО МАТЕРИАЛАМ НАУЧНОГО АРХИВА КИГИ РАН)», 《ДЖАНГАР》 И ЭП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ТЮРКО-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ПРОБЛЕМЫ СОХРАНЕН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териалы I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алмыцкого института гуманита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АН.

МӨХӨӨ, Б. (2011), 「Богд ноён Жангарын дүрийн түүхэн сурвалж- Аюук хаан」, *V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e.d. На.Сүх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ТАЯА, Д. (2011), “Халимагийн алдарт жангарч Овлайн арван бүлэг «Жангар», түүний тод үсгийн бар хэвлэлийн асуудалд”, *V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e.d. На.Сүх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МӨХЗАЯА (2011), 「Жангарт тусгагдсан нийгмийн байгуулал」, *VIBLIOTHECA OIRATICA XXII: ЖАНГАР ТУУЛЬ СУДЛАЛ* (e.d. На.Сүхбаатар),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Биткеева, Н. Ц. (2001), 「«Джангар»: запись, публикация, изучение」, “Джангар” и джангароведение (e.d. П.Э.Алексеева).

1939년 파보르스키가 그린 「장가르」 판화. <https://dic.academic.ru/dic.nsf/bse/83942/Джангар>.

1990년 칼미크 영웅 서사시 「장가르」 550주년 기념 우표. <https://ru.m.wikipedia>.

[org/wiki/Джангар\\_\(эпос\)](http://org/wiki/Джангар_(эпос)).

원고 접수일: 2019년 10월 15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1월 7일

계재 확정일: 2019년 11월 7일

ABSTRACT

---

## The Tears of Heroes and the Memories of War:

Focusing on *Jangar*, the Epic of the Kalmyk Oirad People

Lee, So Yun\*

In the epic *Jangar* of the people of Kalmyk Oirad, *Jangar*, Hongor, and Mingyan, all shed tears from time to time. *Jangar* builds Ar Bomba, an ideal nation, through the conquest wars that began at the age of three. He who can foresee the future sheds the tears after he senses Ar Bomba's crisis. At this time, *Jangar* is preemptively saddened about the future threats he does not face yet. Hongor sheds tears with the gloomy imagination that if he enters in front of the enemy, he will be killed by the enemy. Otherwise, if he returns, *Jangar* will do not want to greet him. His self-esteem is severely damaged in front of the enemy. Mingyan speaks out for the difficulties of leaving his homeland and living alone in Ar Bomba after *Jangar* orders an attack. The focal point here is the loneliness of longing for home after fighting in a war. They can be all referred to as "melancholic heroes" because they are mourning over the loss that has not been lost yet.

*Jangar* is the one who determines the state of exception. In this respect, the tears he shed are the tears of the sovereign. Even though he is a sover-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ign, *Jangar* has no choice but to shed tears because Ar Bomba is the result of the war of conquest; and this makes his position always highly vulnerable. Mingyan's tears have the opposite meaning of the tears of sovereign *Jangar*. His tears remind him that Ar Bomba is a tribal confederation. Interestingly, Mingyan's tears expose the Ar Bomba's birth crisis originated from the tribal federation system. Hongor's tears for when facing the enemy, on the other hand, seem to reflect the emotions of the people of Kalmyk Oirad, who had historically had to stand alone before the enemy in the turbulence of war. The fact that the Kalmyk Oirad people had actually heard of the *Jangar* spear before the war led to the possibility of projecting their position in Hongor.

In 1943, the people of the Kalmyk Autonomous Republic were deported to Siberia for 13 years, accused of serving in Germany during World War II. The Kalmyks socially eradicated the memory of forced deportation until the end of the 1980s.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Jangar* has been remembered in various ways. Considering their national history, which is remembered as "loss," the hero's tears in anticipation of "loss" in front of the mighty enemy are a condensation of the history which is resulted from the loss of the Kalmyks. In addition, when the memory of socially abolished loss, that is, the memory of forced deportation, is struck, it is possible that *Jangar* was a memorial narrative that comforted them in that they were talking about the loss that had not yet been lost. This is why *Jangar* has been constantly reflected as a memorial narrative even in the social abolition of memory.

